

소아 신우신염에 동반된 신 반흔과 ACE 유전자형의 연관성

조수진, 이승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

목적: ACE 유전자의 deletion polymorphism은 당뇨병 신증, Ig A 신증, 및 만성 신질환 등에서 진행성 사구체 경화로의 위험 인자로 보고 되어있다. 소아 급성 신우신염에서 신 반흔의 발생은 연령, 방광 요관 역류의 정도, 세균의 독성, 치료 지연 등과 관련된다고 하나, 유전적 소인의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. 저자들은 급성 신우신염 환자에서 ACE 유전자와 신 반흔 발생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.

방법: ^{99m}Tc DMSA 신 주사 양성인 급성 신우신염 환자 47명에서 ACE 유전자형을 PCR 기법으로 검출하였고, 3-6 개월 후 추적 ^{99m}Tc DMSA 신 주사를 시행하여 신 반흔으로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였다. 연령, 방광 요관 역류 여부, 병원균 종류, 치료 지연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ACE 유전자형과 신 반흔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.

결과: 1. 신 반흔 발생군이 38 명 이었고, 신 반흔 비발생군은 9명 이었다.

2. 신 반흔 발생군에서 ACE 유전자형은 DD 9명 (23.7%), ID 14명 (36.8%), II 15명 (39.5%)로 분포되어 있었다. 신 반흔 비발생군은 DD 2명 (22.2%), ID 4명 (44.4%), II 3명(33.3%)로 분포되어 있었고,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3. 1세 미만과 1세 이상, 방광 요관 역류 유무, E.coli와 기타 세균, 치료 지연 유무로 각각 구분하였을 때에도 ACE 유전자형과 급성 신우신염 후 신 반흔 진행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결론: ACE 유전자는 신 반흔으로의 진행에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.